

다니엘 K. 다르코 박사, 루가복음, 제30차, 예루살렘에서 권위자들과의 공개 교류, 루가복음 20:1-21:4

© 2024 댄 다르코 (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이것은 누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다니엘 K. 다르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30, 예루살렘에서 권위자들과의 대중 교류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21장 4절까지. 성경 언어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보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입성을 보았고, 저는 루가
복음서의 서사와 다른 복음서의 서사를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화와 함께 오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으로
부르고 찬양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고 앞으로 평화를 알지
못할 도시를 위해 울부짖으셨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예수께서 30년대에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도시는 70년에 로마인과 티투스
지도자들에 의해 파괴될 예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그 도시에 오셨을 때, 바로 성전으로 가서 성전을 정화하고, 그
장소를 가르치는 장소로 만들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성전에 그의 가르침 홀을 세운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예수께서 성전을 가르치실 장소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루를 마치고 산으로 가신 다음 낮에 성전으로 돌아와 가르치실
것입니다.

20장에서 읽은 모든 것,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전에서 펼쳐지는 사건입니다. 저는 20장에서 이 특정 사건을 20장 1절에서 21장 4절까지 불렀습니다. 20장의 마지막에 서기관에 대한 비판에서 과부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20장에서 끝낼 것입니다. 그런 다음 21장에서 처음 네 구절은 과부와 과부가 있는 상황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끌어낼지 볼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집중해 보죠. 저는 그것을 예루살렘의 권위자들과의 공개적인 교류라고 부릅니다. 20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계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 보시오. 누가 당신에게 권한을 주었는가? 이 권한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말해 보시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그들은 서로 논의하여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그는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말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이 선지자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를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상황인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가르침과 전파의 형태로 예수의 사역이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 성전 지도부와 예수가 더 이상 은밀한 행동이 없는 지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9장 끝에서 보았듯이 그를 파괴하기 위해 은밀하게 배경에서 놀려고 하지 않고, 지금은 예수에게 와서 무슨 권위로 가르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묻는 직접적인 교환입니다. 예수는 이런 랍비식 대화 스타일을 취합니다. 잠깐만 실례해서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식 추론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그가 질문을 할 때 당신은 답을 기대합니다.

랍비 담론에서 질문을 질문으로 이어가고 질문을 하나하나 꺼내 대답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일이며, 질문을 더 많이 던질수록 질문의 본질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사학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에게 어떤 권위로 가르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는 오, 그렇군요, 하지만 질문도 하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리스와 라틴 법적 추론 프레임워크의 영향을 받은 현대 시스템을 갖춘 법정이라면, 우리는 그가 당신에게 어떤 권위로 가르치느냐고 물었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질문에 답해 주세요.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하지 마세요. 아니요, 하지만 그건 아주 완벽하게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 있는데, 그분은 두 번째 반문을 요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반문은 이제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지도자들을 핸디캡으로 만듭니다. 질문은 어떤 권위로 가르치는가입니다. 이 구절에서 관찰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해주세요.

저는 이전 강의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성전을 가르치는 장소로 바꾸면서 권위를 얻으셨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전의 수호자는 예수께 이 질문을 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권위로, 누가 당신에게 권위를 주었습니까? 완벽한 질문이 아닙니까? 그래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교회의 수석 목사이고 어떤 사람이 와서, 나는 내 지역에서 유명하지만, 그런데, 나는 당신의 설교단을 내 설교단으로 바꾸고, 매일 그곳으로 가서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완벽한 질문일 것입니다, 친구여: 누가 당신에게 내 교회를 당신의 교회로, 내 설교단을 당신의 설교단으로 바꿀 권리를 주었는가? 그리고 더 나쁜 것은, 19장 마지막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서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정당합니다. 다만 후속 질문을 신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는 예외입니다. 반대 질문은 여기서 무언가를 암시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와서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가 적절한 장소에서 완벽한 메시지를 전하는 합법적이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전의 관리인들은 그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권한으로, 누가 그에게 권한을 주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성전의 수호자로서,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목록은 그들이 산헤드린의 일원이거나 산헤드린에서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구성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어떤 권한으로 주어지는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당신이 어떤 권한으로 성전을 정화하고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당신의 가르침의 플랫폼으로 차지할 수 있었는지 물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또한 그가 행하는 가르침과 설교의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그에게 주었는지 묻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글썄요, 예수의 반문은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요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권위로? 이제, 우리가 들은 바에 따르면, 누가는 사람들이 요한이 선지자라고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유대교에서 그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성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손길,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했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들은 돌로 쳐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받을 만한 벌입니다. 이제, 그로부터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들은 매우 현명한 움직임을 취했습니다.

질문에 답하지 말자. 내 십 대 딸이 말했듯이, 친구들은 대개, 그러면 신경 쓰지 마, 손이 등 뒤로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서 하시는 일은, 20장에서 보시겠지만, 이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차례로 구석에 두어, 성전에서 자신의 신임장, 권위,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집,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마치 내가 인수하러 온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의 가르침의 자리입니다. 그는 불안을 줄 만한 우화를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우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하세요.

이 비유는 예수께서 그분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제가 비유를 읽을 때 예수께서 여기서 무엇을 하시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저는 9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소작인들에게 임대해 주고 오랫동안 다른 나라로 갔다. 때가 되자 그는 소작인들에게 종을 보내어 포도원의 열매를 그에게 주게 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또한 그를 때리고 모욕하며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2절. 그리고 그는 또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도 상처를 입혀 쫓겨났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를 존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를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입니다.

그를 죽여서 그 상속 재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그리고 그들은 그를 포도원에서 내쫓아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그는 와서 그 소작인들을 멸망시키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곧 백성이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록된 이 말씀은 무엇이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잇돌이 되었느니라.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다 산산이 조각날 것이니라.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떨어지면, 그것은 그를 짓밟을 것입니다.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복음서 기자들을 넘어선 비슷한 우화가 토마스의 외경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그것은 65~66년에 토마스 복음서에서 예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일하도록 등록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과일을 받았고, 그는 소작인들이 그에게 과일을 주도록 그의 종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의 종을 붙잡고, 그를 모두 때렸지만, 그를 죽였습니다. 그 종은 떠나서 그의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들이 그를 몰랐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종을 보냈고, 소작인들은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종과 똑같이 다른 종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아들을 보냈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내 아들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 소작인들은 그가 포도원의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붙잡아 죽였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제 나는 토마스 복음서를 읽었는데, 같은 내용을 쓴 다른 공관복음서 필자들이 누가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은 누가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의 비유가 예수에게 와서 무슨 권위로 가르치는지 묻는 권위자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누가는 예수가 이 우화적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지만, 오해하지 말라. 누가의 비유가 끝날 때 성전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이해했다. 그들은 그 비유가 자신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고, 그것에 대해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이 아직 있는 동안, 예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청중에게 주의를 돌리셨고, 그런 다음 요세푸스와 다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의 경제적 상황이 때때로 일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고 다른 곳으로 가는 이유라고 말한 맥락에서 그들에게 이 포도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그들이 아는 경제적 패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전에 온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말할 수 있도록 우화적 비유에서 알려진 종류의 시나리오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토마스 복음서에서 알 수 있듯이 포도원 이미지입니다. 포도원 이미지는 이스라엘 집을 언급하는 듯하며, 여기서 소작인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청지기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인이 외국에서 지체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 우화적 우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와 관용의 이미지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하는 일을 하지 않는 동안,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선지자들을 먼저 보냈고 그들이 그들을 학대했고, 잘 대하지 않았고, 때리고, 그들을 외면했고, 그들에게 온갖 짓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제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비유에서 예수님 자신이 이야기 속의 아들인데, 사람들은 오, 아니, 주인이 와서 파괴할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지만, 당국은 예수님과 관련하여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사건이 전개되면서, 이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던 바로 그 아들을 죽이는 데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누가는 80년대에 30년대에 전개되고 있던 사건에 대해 쓰고 있으며, 예수는 이 사람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누가는 예수가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기 전의 상황을 상상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이것을 들었고,

마치 예수가 이제 내가 비유에서 말하는 것을 알았으니, 내가 직접 당신에게 말하게 하라고 말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구조물을 견고하고 타협 없이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구조물을 지탱하고 서 있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을 거부하려는 자는 돌의 두드러짐을 보게 되지만, 실제로 적극적으로 돌에 부딪히는 자는 돌에 의해 파괴됩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다시 말해, 비유 속의 이 돌에 대한 모든 것, 예수의 인용문에서 비유의 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아들은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를 죽이려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 파괴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제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마도 그의 마지막 비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들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전개되는 사건들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으며, 루크 티모시 존슨이 말한 것과는 달리, 그가 쓰듯이, 그들은 상속자에 대한 반대 때문에 파괴될 것이지만, 포도원 자체는 남아서 다른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루크의 이야기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현재 지도력은 열두 번째 지도력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서사에서 전개되는 것을 관찰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권위로 가르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칩니다. 의역하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반대하는 자들은 파괴되지 않더라도 대체될 것입니다.

의역하자면, 이 모든 일은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것을 잊지 마세요. 성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성전 대장이 성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제, 예수는 전체 시스템을 납치하여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19절부터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사람들 사이의 교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바로 그 시간에 그에게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를 지켜보고 진실한 척하는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가 하는 말을 붙잡아 그를 총독인 이방인의 권세와 재판권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편애하지 아니하심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가르치십시오.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조세를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러나 그는 그들의 교활함을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 주십시오.

누구의 모습과 비문이 있느냐? 그들은 카이사르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모든 백성 앞에서 그가 하는 말을 붙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대답에 놀라서 그들은 잠잠해졌습니다. 루크가 이 특정 기록을 만들어내는 능력과 그가 지적하는 세부 사항을 주목하세요. 루크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도자는 말했다, 오,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그가 우화에서 말한 것은 모두 우리에게 대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들을 죽이고 결국에는 짓밟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어려운 말을 하신다는 점에서 항상 똑똑하십니다.

그는 이야기 속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내세울 기술을 보세요. 이제, 그들은 스파이를 세웁니다.

이 지도자들의 MO, 행동 방식을 주목하세요. 이것은 그들이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는 데 도움을 줄 다른 사람을 찾으려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유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들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의로운 척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예수께 왔을 때, 그들이 예수께 어떻게 말할지 주목하세요.

다시 그 구절을 살펴보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마다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했는지 놀랍고,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그들이 예수께 다가갔을 때, 21절에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들은 정탐꾼들입니다, 알겠어요? 이들은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하고,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께 다가가는 방식을 보세요.

21절. 선생님. 그들은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당신이 바르게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제 말은, 만약 현대라면, 어떤 현대 카리스마적인 목사가 어떤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을 듣고, 오, 맞아요, 저는 항상 제가 그렇다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어요. 오, 맞아요. 아니요.

예수께서 그들의 교활함을 알아채셨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헛된 말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몇 가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을 할 것이라면,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독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을 위해 몇 가지를 풀어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첫 번째 독서는 두 왕국 독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조셉 피츠마이어의 개요를 따르고 있습니다 .

피츠마이어는 세 가지 독서를 상기시켜줍니다. 첫 번째는 두 왕국 독서로, 예수가 카이사르에게 빼앗은 것을 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예수는 실제로 공물과 세금 납부에 대한 적절한 태도를 옹호하고, 물론 통치 당국을 존중하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헌신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제안하는 두 왕국은 나란히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인은 살아남기 위해 섬세한 균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특정 구절에 대한 다른 독해는 일반적으로 아이러니라고 불리는 독해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당신이 카이사르에게 그가 빼앗은 것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카이사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카이사르가 빼앗은 것을 카이사르에게 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봐요, 친구들아, 그 쓰레기는 카이사르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라와서 올바른 것을 얻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반열렬주의자적 해석이라고 알려진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예수께서 정치적 대립에 저항하려 하고, 동전을 집어 올리면 카이사르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위에 건강하지 못한 정치적 대립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어떤 독서를 선택하든 이 텍스트에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관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 묻고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닌지 묻기 위해 예수님께 온

무고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이 구절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이상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그들이 의로운 척하고 예수를 선생님으로 부르려고 하는 계략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를 정직한 사람으로 묘사하여 그를 함정에 빠뜨려 곤경에 빠뜨리고 성전 당국이 그것을 이용해 그를 끝장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에게 로마 세금에 대해 물으러 왔을 때, 그들은 현재 팔레스타인에서 깊이 논란이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보수적이거나 독실한 유대인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 세금이라는 생각과 로마인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기뻐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세금 징수원에 대한 대중의 태도의 배경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 로마인들을 위해 모든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를 그 공간에 두는 것조차도 예수가 청중인 사람들을 격노하게 할 수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예수를 두거나, 성전 당국이 그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그를 유죄로 만들 수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예수를 두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그들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부를 때 그들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공평한 사람이라고 불렀을 때, 그들은 그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불렀을 때, 그들은 그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책략의 일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당신이 나에게 이것을 묻고 무엇이 합법적인지 묻는지 물었을 때, 당신은 정말로 답을 얻을 의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를 이런 질문의 흐름으로 끌어내어 여기서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실 것입니다. 제가 슬라이드에서 지적했듯이 귀속은 함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말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이 말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그가 공평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올바른 교사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율법이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군가가 데나리온 주위에 동전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실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전까지는 세부 사항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실 때, 예수님은 실제로 여기서 매우 멋진 것을 가지고 놓고 계십니다.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나에게 로마인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좋은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로마 화폐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로마 화폐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로마 화폐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는 그들을 끌어들였고, 그들은 화폐를 보여주었습니다. 데나리온에는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는 영어 번역으로 읽혀야 하는 비문이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시대의 로마 동전 이미지를 슬라이드에 올려두었으니 보시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을 천천히 끌어들여 하나하나씩 그들만의 함정에 빠뜨리고 계십니다. 그는 그들에게 동전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는 실제로 폭로에서 그들을 고발하고 계셨습니다. 로마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왜 로마 화폐를 당신 자신을 위해 간직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려고 하셨을 때, 그는 그들이 제국 제도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화폐에 누구의 모습이 있고 어떤 비문이 있는지와 같은 질문을 매우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비문에

카이사르가 신성하다고 쓰여 있고, 당신이 카이사르를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면, 왜 그 화폐를 가지고 다니십니까? 카이사르의 이미지가 있다면, 왜 당신은 카이사르에 대한 충성심에 대해 나에게 질문하십니까? 카이사르에게 카이사르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예수께서 줄 수 있는 완벽한 대답입니다.

누가는 예수가 공적 사역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여기서 예수가 한 일은 함정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스파이, 핑계, 아침을 사용하여 예수를 구석에 몰아넣으려는 공개적인 시도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명예와 수치의 사회에서 예수가 성전 뜰에서 공개적으로 한 일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사례에서 수치는 정탐꾼에게 돌아가지만, 두 번째 사례에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이 정탐꾼들을 이용하던 당국자들도 함정에 걸렸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천재라는 것을 확립했으며, 강도의 소굴로 변했던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장소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카이사르에게 바치는 것이 카이사르의 것이고 우리가 어떤 독서를 채택하느냐의 문제라면, 제가 지정한 세 가지 독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여기서 바울의 신학을 간과하지 말라고 제안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 예수와 함께 보았듯이 당국에 세금을 냈습니다. 예수가 빈털터리일 때에도 그는 물고기의 입에서 돈을 꺼내 그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밀러의 개입을 활용하여 세금을 내는 데 필요한 재정을 조달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세금을 내고 권위자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는 권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을 반정치적 체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이 정치적 권위자들을 거기에 두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는 데 필요한 권위자들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들의 주된 충성심은 그 권위자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된 충성심은 신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카이사르에게 카이사르의 것을 바치고 신에게 신이 의미하는 것을 바치라고 제안하신 것이 아닙니다. 카이사르는 당신의 충성심의 50%를 가져야 하고, 신은 당신의 충성심의 50%를 가져야 합니다. 아니요.

그는 신에게 가장 큰 충성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다른 신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닙니다. 이 특정한 경우에 그는 일반적인 교훈적인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략에 대한 응답으로 이에 답하고 있으며, 그는 결국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그들의 질문에 답합니다. 마치 성전에서의 대화가 뜨거워지지 않고 관리들을 충분히 불편한 곳에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는 27절에서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른 질문으로 이끌려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부활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한 바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는 있지만 자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과부를 데리고 형을 위해 자손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제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내를 취하여 자식과 함께 죽었고, 둘째와 셋째는 아내를 취하였고, 마찬가지로 일곱 형제 모두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 여자도 부활 때 죽었으므로, 일곱 형제가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을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와!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아들들은 결혼하여 시집가지만, 그 시대에 이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자들은 결혼하거나 시집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모세도 떨기나무에 관한 구절에서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서기관 중 몇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감히 그에게 질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경우입니다. 그들은 권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성전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들어와서 다른 하나를 시도했고,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내야 할 모든 세금을 알고 있다고 가장했지만, 그것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루가는 처음으로 그의 복음서에서 사두개인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 들었지만, 이 그룹, 사두개인은 누구일까요? 1세기 무렵 유대교의 제2성전 유대교에는 다양한 당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당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가 이전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큼니다. 대부분의 서기관은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그들은 법률적 의로움을 믿는다. 그들은 공공장소, 농촌이나 도시 지역에 더 많이 있었고, 그들은 교사로서 회당 예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의 도시 지역에 더 집중했다.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성전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몇 바리새인들에게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누가는 부활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을 때 사두개인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일까요? 사두개인들은 사무엘하 8장에 언급된 다윗의 제사장 사독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계급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귀족입니다. 그들은 매우 부유합니다. 그들은 도시 지역에 살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기록된 법, 기록된 토라를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선지자, 심지어 구전 전통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전 전통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으며 선지자들은 토라를 강조하는데, 특히 우리가 기독교 시험에서 구약의 처음 다섯 권으로 볼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통제하고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유대인 의회, 즉 산헤드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엘리트 계층이었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세푸스가 기록한 대로, 바리새인들은 영혼이 육체와 함께 죽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헬레니즘 문화와 친화력을 갖는 것을 괜찮게 여겼고, 그래서 로마인이나 그리스인과 협상하고 거래하고 기꺼이 하는 것은 사두개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과 부활에 대한 질문과 관련된 요점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그들이 부활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부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부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을 상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성전에서 예수에게 던진 질문, 즉 대제사장이 사두개인이기 때문에 변경하는 질문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고 곤경에 빠뜨리려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사두개인에 대해 알아야 할 또 다른 것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이 구절 중 일부를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는 전쟁에 대해 기록했지만, 요세푸스는 사두개인이 두 번째 계급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그는 바리새인을 나열하고 믿음을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은 사람 자신의 선택이며, 둘 중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속하며, 그들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영혼의 불멸 지속과 증오에 대한 처벌과 보상에 대한 믿음을 앗아갑니다.

저는 성전의 대제사장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때 교실에서 학생들의 얼굴을 자주 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기독교의 중심 주제로 확신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개되고 있는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했을 때, 사두개인들은 기록된 토라를 믿었기 때문에 신명기 25장을 인용하여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기록에서 그들이 모세가 말했다고 말할 때, 그들이 인용하거나 추론한 것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중 한 사람이 죽어 아들이 없으면 죽은 사람의 아내는 가족 밖에서 낯선 사람에게 시집가서는 안 됩니다.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 가서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여 남편의 형제로서의 의무를 그녀에게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의 이름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율법은 이렇습니다. 형제가 있고 그중 한 사람이 결혼해서 그 사람이 아내와 자식 없이 죽으면, 형제 중 한 사람이 그 아내를 데리고 가서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고, 그들이 자식을 낳으면 첫 아이는 형의 이름을 따서 지어야 하고, 그 첫 아이는 죽은 형의 후손을 부양하거나 유지해야 합니다.

기록된 토라를 믿는 사두개인들은 누가복음에서 알 수 있듯이 모세를 불러 모세가 그렇게 말했다고 말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기억하십니까? 일곱 형제가 이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이 없다면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성경 e러닝 시리즈의 청취자 중 일부는 서양인일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레비라테 결혼이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것은 당시의 문화이고, 오늘날에는 죽은 형의 아내가 자식이 없다면 형이 실제로 그녀와 자고 자식을 낳고 자식들이 죽은 형을 위해 거기에 있는 이런 종류의 문화를 실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아버지가 죽으면 형이 아버지의 젊은 아내를 아내로 삼아 아들이 아내를 돌볼 수 있는 일부 문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 보험 정책이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 아내를 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젊은 아내를 돌보는 방식입니다.

저는 최근에 특정 문화적 상황을 접했는데, 한 여성이 동아프리카의 외딴 문화권에서 그녀가 사는 특정 문화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문화권에서는 오늘날에도 여성이 레버리지 결혼 제도에서 결혼할 때, 유대인과는 약간 다르지만, 여성이 가족의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관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결혼하면 가족의 아내로 불립니다.

관습에 따라 남편의 아버지가 먼저 당신과 자고, 그다음 형제들이 당신과 자고, 그러면 당신은 평생 남편과 함께 있게 됩니다. 결혼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아버지와 형제들은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거기에 있을 것이고, 당신을 지지할 것이고, 당신은 그들의 가족의 일원이며, 그들의 피의 일부이고, 언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당신을 돌볼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셉 피츠마이어가 루가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레버리지 시스템은 형제의 집을 이어가기 위해 처남이 형의 과부와 성관계를 통해 자녀를 낳는 결혼 관습이 고대 근동에서 널리 퍼져 있었으며 아시리아인, 히타이트인, 가나안인 사이에서 유행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에게 물었던 것은, 알다시피,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우리는 이런 종류의 레버리지 결혼 제도가 예수 시대인 1세기에 여전히 실행되고 있었을 것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큼니다. 저는 이 강의 시리즈에서, 1세기에 로마법은 일부다처제를 허용하지 않았고, 그리스법도 일부다처제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유대법은 일부다처제를 허용했다고 언급했을 때, 제 미국 학생들에게 때때로 논란이 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세푸스는 그의 고향에서 여전히 한 명 이상의 아내와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그 관행이 1세기에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예수 시대에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명 이상의 아내와 결혼하는 대부분의 남성이 다른 아내가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결혼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요세푸스의 말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레버리지 결혼 제도가 여전히 만연했던 문화의 또 다른 부분을 소개합니다. 예수 시대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에게 이 관습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대답은 이러했다. 그들의 질문은 오히려 잘못된 질문이다. 그것은 잘못된 질문인데, 왜냐하면 결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당신은 출산을 위해 결혼하는 것이고, 예수는 내세에 죽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계산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위해 결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그의 아내가 될지에 대한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그 경연에서 나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생식을 위해 성적 활동을 인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예수께서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어 불변화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천사와 같을 것이라고, 또는 불변화사를 비교급으로 번역하기로 결정했다면 천사와 같을 것이라고 지적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지금 천국에 있는 모습과 결혼할 필요가 없는 모습 사이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주목하십시오.

저는 그들이 기록된 토라를 믿는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마음을 찢어 모세를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역하자면, 여러분, 모세가 자신이 아브라함의 신, 이삭의 신, 야곱의 신이라고 말한 불타는 떨기나무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추측하거나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부활한 자의 하나님이시 기억 없이 무덤에서 죽어 멸망하는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일은 그들이 모세에게서 뽑아낼 구절을 반박하기 위해 믿는 구절을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의 해석을 통해 방법을 찾는다면 오늘날 우리가 논평하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모세에게 가서 사실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기록으로 돌아가서 매우 흥미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기뻐했던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두개인들은 서기관들이 대부분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기뻐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들은 아 예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항상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 예수의 대답은 서기관들을 아하하게 만든다. 멋지다. 하워드 마셜 의 말에 따르면 , 요점은 새로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결혼 관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지상 관계의 폐지를 의미한다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관계가 새로운 수준의 개인적 관계로 초월될 가능성이 더 큼니다.

제기되는 기본적인 요점은 출산 수단으로서의 결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셨고, 대화의 그 부분을 마무리하시면서 다윗이 인자를 언급할 때, 시편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오른편에 앉아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밥그릇으로 삼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자신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확립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윗이 다윗의 아들을 언급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다시 확립하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일 것입니다. 20장의 이 지시는 45절에서 서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소나 경고로 끝납니다.

누가는 기록하고, 모든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가장 좋은 자리와 잔치에서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과부를 삼키고, 법무관들이 길게 기도하면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차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부활에 대한 질문에 답하셨고, 사두개인들을 슬프게 하셨고, 서기관들을 행복하게 하셨고, 이제 그분은 제자들이 이 사람들과 같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멋진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그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쇼맨십을 좋아하고, 사원에 가면 중요한 장소에 있고 싶어하고, 긴 기도를 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좋은 모델이 아닙니다.

그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서기관들이 좋은 모범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대중적 이미지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싶어하고, 명예로운 자리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는 또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의 종교적 허세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들은 회당에 앉아 인상을 주기 위해 긴 기도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 기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서기관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들이 과부들을 이용하기를 좋아한다고 언급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무슨 뜻일까요? 잠깐, 강의의 이 부분을 마치며 예수께서 과부들을 삼킨다는 언급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강조해 보겠습니다.

피츠마이어 의 개요를 취하는데 , 그것은 과부를 삼키는 것을 바라보는 여섯 가지 방법을 나열하기에 매우 간단명료합니다. 첫째, 그것은 그들이 법적 지원을 위해 과부의 자원을 착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읽습니다 . 둘째, 그들은 과부를 이용하고 그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을 강탈했습니다.

셋째, 그들은 아마도 과부들의 환대와 관대함을 통해 그들을 착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헌신한 과부들이 그들의 자원을 가져오게 하고 이 자원들이 서기관들에 의해 관리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는 다섯째, 그들은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 볼 수 있듯이 과부들을 위해 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과부들로부터 돈을 빼앗았거나, 과부들의 집을 그들의 빚에 대한 담보로 잡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20장 마지막에 보면 성전에 계신 예수께서 자신에게 제기된 중요한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은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했고, 그는 매우 잘 대답하셨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은 또한 항상 다른 사람들을 스파이로 삼아 카이사르에게 세금과 조공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놀라움과 부끄러움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나타나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성전에서 그들만의

영역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그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호소한다면, 예수도 설명에서 모세에게 호소했고 그들을 놀라게 하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20장을 끝맺습니다. 누가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예수의 대답에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서기관들은 그것을 기뻐했다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하면서 20장을 끝맺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제자들이 서기관들의 행실과 종교적 경건함을 삼가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공공장소에서 보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쇼맨십을 좋아하고 긴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명예로운 장소와 공격적인 장소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확실히 좋은 모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을 가르치는 장소로 정하셨고, 여기 누가복음 20장에서 그는 성전 관리들과 한 가지 주제와 다른 주제에 대해 공개 토론을 하셨습니다. 21장으로 넘어가면서, 그가 서기관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과부들을 삼키거나 이용한다고 언급하신 것을 주목하세요.

그것은 루크가 우리에게 과부에 대한 무언가를 말해주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전개되는 사건을 따라가고 있기를 바랍니다. 루크 20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는 도시로의 그의 오심을 예언한 선지자이며, 지금은 도시에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 있는 동안 그는 마치 철학자와 같았고, 누가는 그를 묘사할 것입니다. 그는 담론과 공개 토론을 제공했고, 그는 그것을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그의 주제는 본질적으로 신학적이었고, 그가 사회 및 정치적 주제에 간헐할 때 그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 강의 시리즈를 따라가다 보면 아마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는 유대 전통의 종교적 중심지인 다윗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오는 메시아입니다.

그는 왔고, 그는 신성한 공간을 차지했고,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말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있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당국과의 교류에서 그를 없애려는 음모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가 성전을 인질로 잡고 성전의 지도자들이 그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권한에 도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는 그것을 거대한 교실로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는 곤경에 처해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누가복음에서 가장 어려운 장인 21장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려 하고, 가장 복잡한 담론을 통해 그가 올 많은 일들을 예언하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위대한 교사가 마지막 담론에서, 마지막 공개 담론에서, 그가 체포되기 전에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확실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우리는 수난 사건이 전개되는 데 가까워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 강의를 따라가면서 루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다.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걷고 있습니다. 이 강의 시리즈를 따라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이 학습 여정을 계속하고, 특히 수난주간에 마음을 열어 그가 오신 이유, 그가 죽으실 이유,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다니엘 K. 다르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30, 예루살렘에서 권위자들과의 대중 교류입니다. 누가복음 20. 1-21. 4.

